



일본

● 미츠이물산, 닭고기 중국에서 생산 착수



미츠이물산이 중국에서 닭고기의 일괄 생산을 개시한다.

이로써 12월을 목표로 대만이나 중국의 식품회사와 산동성 칭타오시에 합작회사를 설립, 사료나 농장운영에서부터 가공까지 착수하는 일괄 생산을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 코스트가 낮은 중국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생산량은 초년도 1천만수, 3년 후에는 2천만수를 예정하고 있으며, 중국 국내와 일본에서 판매한다.

합작회사는 「三統万福食品公司(칭타오)」로 자본금은 천 2백만 달러이며, 미츠이물산 자회사인 제일브로일러가 계 30%, 대만 최대의 식품회사인 統一企業과 중국의 靑島万福集團이 잔여 70%를 출자한다. 미츠이물산과 제일브로일러는 생산기술 제공 및 수출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내년 9월 신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며, 총투자액은 약 3천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량의 약 80%를 북경이나 상해 등 중국의 연안부에 판매하며 나머지 20% 정도를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할 계획이며, 매출목표는 초년도 25억엔, 3년후 50억엔을 예정하고 있다.

미츠이물산의 계육사업은 현재 연간 2천6백만수 규모로써 제일브로일러에서 생산, 가공하고 있는 일본내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해외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 자료 : 일본경제신문

태국

● "VIV Asia", 내년 3월 5일부터 방콕서 개최



아시아 축산 박람회인 "VIV Asia"가 2003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태국 방콕에 위치한 퀸시리키트 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VIV Asia는 지난 1993년부터 2년 주기로 개최되는 박람회로 지난 2001년 박람회에서 한국축산관을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국내기업 19개 업체에서 참여하여 수출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이번에 개최지인 태국은 지리적으로 30억의 인구가 밀집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과 인접하고 있어 아시아 시장의 진출하려는 세계 유수 업체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한국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프랑스

● "SIMA 2003", 2003년 2월 파리서 개최



격년제로 홀수년에 개최되는 “프랑스 국제 농기계 및 축산장비 전시회(SIMA 2003)”가 내년 2월 23일에서 27일까지 5일간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뜨 전시장(Parc des Expositions de Paris Nord Villepinte)에서 개최된다.

전문 전시회 주관사인 Expositum사가 농기계 조합, SYGMA, SECIMA과 결성한 EXPOSIMA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지는 SIMA·SIMAGENA·SIMAVIP 전시회는 전세계 농업 및 축산 전문가들을 위한 국제적 규모의 전문 전시회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총 1,300여개 출품 업체가 참가하고, 182,000명의 방문객(외국인 방문객 41,000명)이 관람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둔 SIMA 전시회는 2003년에도 프랑스 국제 축산 전시회(SIMAGENA), 프랑스 국제 축산 장비 전시회(SIMAVIP)와 한자리에 열리게 됨으로써 세계 농·축산 분야의 주요 전시회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유수의 농·축산 장비 제조업체들이 이미 전시회 출품 신청을 완료한 이번 2003년 SIMA 전시회에서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전시회 관람을 위하여 농·축산 각 분야별로 나누어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 농기계공업 협동조합(KAMICO)이 주관 프랑스 국제 전시협회와 상호 협력하에 200㎡ 규모의 한국관을 트랙터관이 위치한 6번 홀에 마련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미 LG, 국제, 중앙기술산업, 거농기계 등 유수의 한국 업체들이 참가 신청을 하였다.

말레이시아

● 중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 소비자협회는 종교와 위생문제를 들어 중국, 태국,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을 즉각 금지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자주 발생되고 있는 조류 바이러스를 문제삼아 중국산 닭고기에 한하여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저가에 수입되었던 외국산 닭고기의 소비가 크게 하락할 전망이며, 그대신 국내산 닭고기 소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 소비자협회는 미국이 말레이시아를 테러관련 국가라고 선포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산 상품 불매운동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